



## 2 생활의 룰·매너·습관

### 2-5 생활습관 : 목욕탕

#### (1) 가정에서는

대부분의 일본 가정에서는 목욕탕=바스룸은 욕조(바스타브)와 씻는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씻는 곳에서 몸과 머리를 잘 씻은 후 천천히 욕조에 몸을 담그고 릴렉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끼리의 경우는 그 때마다 목욕물을 교환하거나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끝날 때까지 욕조의 물은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물을 항상 깨끗이 해 두기 위해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도록 합니다. 욕탕의 남은 물은 세탁에도 이용할 수 있고, 지진 등 비상 시에 필요한 물로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곰팡이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스룸은 자주 청소합니다.

#### (2) 센토 (공중목욕탕)에서는

집에 목욕탕이 없을 때는 센토라는 유료 공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공동으로 대욕탕을 이용합니다. 센토를 이용할 때에는 세면기 이외의 타올, 비누 등은 스스로 준비해 갑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기분 좋게 입욕할 수 있도록 유의하며, 반드시 몸을 씻고 나서 욕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용시간·요금 모두 가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15시부터 23시경까지이며, 입욕요금은 어른의 경우 대개 400엔 전후입니다.

다만, 「슈퍼 센토」 「건강랜드」로 불리는 곳은 여러 종류의 욕탕과 사우나가 병설되어 있는 등 시설이 충실한 만큼 요금이 비싼 편(800~2000엔 정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센토에서는 문신이나 타투를 새긴 사람은 입욕할 수 없습니다.